

여전히 아름답고 매혹적인 상상의 힘

21세기 벽두에 던진 두 젊은 작가의 도전장

김혜련 | 문학평론가

“문제는 상상력이었다. 아득한 시대에 이야기의 생명이 상상력이었듯, 현재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할, 끝끝내 이야기의 존재 증명원이 돼줘야 할 상상력. 그럼에도 상상의 근거를 묻고, 상상의 정도를 재단하는 풍조가 횡행하고 있다. 제한된 상상, 분석된 상상은 불임의 자궁이다. 생명력이 거세된 자궁은 자유나 일탈, 욕망 그 어떤 것도 잉태할 수 없는 것이다.”



문학과지성사/A5신/288면/7500원

문학동네/A5신/280면/7500원

여기, 상상의 힘, 그것을 꿈꾸는 두 권의 소설이 있다. 김영하의 《아랑은 왜?》(문학과지성사)와 김연수의 《꿈뻘이, 이상》(문학동네)은 근대적 패러다임이 조장한 경계긋기식 사고를 전면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상상력’을 심음으로써, 소설의 세계가 얼마나 다채롭고 화려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지를 매혹적으로 펼쳐 보인다. 특히 이 두 작품은 구술적 환상성과 예술적 연결성의 아우라를 발양시키는, 구비적 문학 형태인 전설과 이상(李箱)이라는 문학적 실존에 대한 현대적 의문을 증첩시키고 소설적 스펙트럼의 미려한 변주를 통해 ‘언제나 무한한’ 소설의 존재 방식을 경험하게 한다. 이들은 젊은 작가들의 문학성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거나 도저히 회의를 내세우는, 잡다하고 너절하고 배배꼬인 무수한 한탄과 노호들을 일축할 만한 심상치 않은 기세를 발산한다. 《아랑은 왜?》와 《꿈뻘이, 이상》은 21세기 벽두에 던진, 두 젊은 작가의 아름다운 도전장이다.

능란한 서사 조작과 세련된 추리기법 돋보여

《아랑은 왜?》에서 김영하는 전근대적인 귀신담 아랑전설을 전면적으로 해체한 후 능란한 서사 조작술과 세련된 추리기법으로 이를 재창조하는 과정을 자신이 직접 화자로 나서서 완전히 노출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때로는 자문을 구하는 목소리로, 때로는 함께 고민하는 포즈를 통해 한

편의 소설을 ‘만들어간다.’ 그렇다. 《아랑은 왜?》는 ‘소설’을 꿈꾸는 여러 요소들, 가령 인물이나 시점, 배경들의 ‘공개 오디션’을 직접 보여주는, 우리 소설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독서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 많은 오디션 참가자 가운데 누가 결정되는지를 지켜 보는 내내, 독자들은 감도 높은 서스펜스와 흥미, 긴장 속에서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공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작가의 이런 당돌한 작업의 함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야기의 믿을 수 없음’이다. 그는 아랑전설의 전과과정에서 어떻게 한 편의 이야기가 살아남아 유포되는지 보여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울 것도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이는 개연성을 무기삼아 ‘목회자’를 자임하는 근대소설의 위선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아랑은 왜?》는 이야기의 진실이란 무엇이며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조작되고 변형되며 혹은 사라져가거나 남는지를 직시하게 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온갖 세계 초극적 제스처, 독자를 적당히 위무하기 위해 삶의 지혜를 전달하려는 포즈에 대한, 다시 말해 허구나 개연성을 무기로 피안의 목소리를 내뿜는 소설의 인습화된 문맥을 전면 해체하려는, ‘소설의 이론과 실제’ 혹은 ‘다시 쓰는’ 소설창작론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소설의 모두와 말미를 장식하는 “아랑은 나비가 되었다고 한다”라는 매

혹적이며 비의적인 진술은 이 소설 전체에서 환기되는, 상상력의 아름다운 메타포로 진동한다는 점이다. 나비란 지상의 현실 위로 부는 ‘실체 없는 바람’의 힘에 의지해, 장려한 비행을 하는 존재다. 그것은 실체하지 않는 실체에 의지해 자유로운 여행을 하며 창조의 원천을 씨뻘이한다. 보이지 않음 혹은 무로부터의 무한한 창조. 이야기의 힘은 상상력이다. 아랑전설에 승승 뚫려 있는 여러 층위의 틈바구니에서 새롭게 창조될 아랑 이야기를 이리저리 상상하면서 읽는 일이 이 소설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재미를 낳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김억균에 의해 재조사된 16세기 버전 아랑 이야기에서 결말의 반전은 작가의 글쓰기가 향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긴요한 단서로 기능한다. 아무래도 작가에게 합리적 사고방식은 탐탁치 않은 모양이다. 김억균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탐정 편에 서지 않은 데는 인과율에 의한 합리성, 근대적 사실과 분석적 실증 등이 적어도 소설에서는 유쾌한 손님이 아니라는 인식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사실 추리탐정에게 모든 사건은 조각맞추기 게임이다. 약간의 여백조차 허용하지 않는 조각맞추기 행위는 근본적으로 창조와는 거리가 멀다. 다 맞춰진 하나의 조각작품은 상상력도, 반추의 과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완성한 후에는 손 털고 일어나면 그뿐이다. 작가가 여러 이본들을 낳는 구비전승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끌어 온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전승돼온 만큼 옛이야기는 다양한 윤색과 새로운 버전으로 창조될 수 있는 영성한 '틈'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틈'은 존재에 대한 '부재'의 영역이다. 부재는 언제든지 창조를 배태할 수 있는, 상상력의 진원이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에 의지해, 저 멀리 알래스카까지 비행할 수 있는 나비처럼, 그 여행 동안 배태할 수많은 생명들처럼, 틈(부재)에서 발원한 상상력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창조하며 한없이 날아간다. 꽃도 피지 않을 것 같은 곳까지도 나비가 날아가듯 어떤 인과율의 원리나 합리적인 추론이 개입할 수 없는, 근대적 사고 저 너머로 흘러가는 상상력.

그렇다. 문제는, 상상력이었다. 아득한 시대에 이야기의 생명이 상상력이었듯, 현재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할, 끝끝내 이야기의 존재 증명원이 돼 줘야 할 상상력. 그럼에도 상상의 근거를 묻고, 상상의 정도를 재단하는 풍조가 최근 횡행하고 있다. 제한된 상상, 분석된 상상은 불임의 자궁이다. 생명력이 거세된 자궁은 자유나 일탈, 욕망 그 어떤 것도 잉태할 수 없다. 전근대적인 황당무계한 미신적 사고나 어떤 분석적 잣대로도 설명될 수 없는 탈근대적 욕망과 환상의 뿌리 저 아래의 힘, 그것은 상상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완벽한 추리에 의해 사건을 해결한 '근대적 의미의 탐정'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 더욱이 그에게 중형을 부과한 이유는 분명해진다. 그것은 상상을 재단하고 분석해 단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성에 의해 추방당할 위기에 몰린 상상력, 원시적이고 비의적이까지만 한 기술적 사유의 그 신비스런 상상력, 인류의 장구한 이야기 문화를 추동시킨 근본적인 힘, 상상력. 김영하에게 상상력은 소설이 결코 잘라내서는 안되는 탕줄이다.

실증적 탐사와 추리소설적 기법의 결합

김연수의 《꾼빠이, 이상》은 이 상의 시와 산문뿐만 아니라 김기림, 최재서, 변동립, 박태원 등 당대 문화적 인물들에 대한 실증적인 탐사를 통해 '이상'이라는 텍스트를 새롭게 추상화하고 서사화한 작품이다. 특히, 이 상의 임종 당시 뒤편이나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데드 마스크'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오감도시 제16호 실화'

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을 중심축으로 형성되는 이 작품은 진짜/가짜에 대한 예코식의 문제 의식과 진위판단을 내리는 추리소설적 기법이 능란하게 직조돼 있어 가독의 흥미까지 제고시킨다. 더욱이 제3부 〈새〉에서는 일인칭 화자 피터 주의 존재확인(identity) 과정이 '오감도시 제16호 실화'의 진위여부와 맞물리면서, 작가가 줄곧 매달려온 진짜/가짜 문제가 좀더 본질적으로 첨예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소설의 매력은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에 있다. 예술적 연결성의 시대인 이 상의 시대를 신비스러우면서도 실증적인 자세로 탐사하면서 불명확한 기억과 기록들이 빚어낸 '틈'을 발견해 이야기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비의적 아우라의 요인인 것이다.

《꾼빠이, 이상》의 키워드인 '데드 마스크'나 '실화'는 각각 죽음(dead)과 상실(失), 즉 부재의 기호다. 그 둘의 진위여부를 둘러싼 무성한 추론은 부재의 실재화, 가짜의 진짜화를 향한 과도한 열정이 빚어낸 산물일 뿐이다. '존재 자체'와는 무관하게 증폭되는 가짜의 진짜화 추론은 허위적 이성의 폭력적 행위다. 가짜와 진짜를 순식간에 뒤바꾸는 이성의 교활함. 현실은 교활한 이성의, 롤러코스터의 세계다. 논리와 열정, 믿음이 한데 충돌해 몸을 섞어버리는, 진짜와 가짜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아찔한 이성의 곡예.

그렇다면 명백한 이성적 사유로 온몸을 단련한 실재하는 모든 진짜야말로 지나친 믿음과 허위적 이성에 의한 조작적 산물일 뿐 김연수가 말하는 '존재 자체'와는 애당초 무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호 배제적인 신앙(절대적 믿음)과 이성이 공모해 '또다른 진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벌어지는 은밀한 야합과 교활한 허위를 목도할 수 있다. 결국 논리나 열정이냐는 '또 하나의 진짜'라는 모순을 양산하는 과시적인 명분에 해당할 뿐이다. "문제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바에 따라서 그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라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진짜인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짜인 것이죠. ...다만 무한한 것 앞에서는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애매해진다는 말입니다"는 작품 속

인물의 강렬한 토로에서 진짜/가짜의 경계 속에 음험하게 도사리고 있는 도구적 이성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때문이다.

소설장르에 대한 반성 유도해

그렇다면 표제어 '꾼빠이, 이상'은 이 상을 둘러싼 무성한 시니피앙에 대한 결별이자 근대 이성이 조작하고 유포한 '진짜' (혹은 가짜)에 대한 결별의지인 셈이다. 진짜/가짜, 진실/거짓, 주체/타자, 정통/이단, 현실/허구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작한 산물에 불과하며, 그 인위적인 구분에 권위를 부여할 만한 순정한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순정한 그 무엇 혹은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 자체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작가의 의도는 진짜/가짜에 대한 맹목의 해체, 조작된 진짜/가짜에 공모한 온갖 허위적 이성에 대한 결별,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김영하의 《아랑은 왜》와 김연수의 《꾼빠이, 이상》은 '지금, 여기에서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렬하고도 적극적인 반성을 유도한다. 소설의 진실을 맹신하지 말라. 소설은 여차피 믿을 수 없는 놈이다. 소설의 매혹은 아름답고 비의적인 상상, 그것이다. 자, 소설의 족쇄를 풀어라. 소설의 주인은 소설이지, 작가도, 독자도, 비평가도 아니다. 이제, 김영하의 일침을 다시 들여보면서 소설에 대한 인습화된 편견을 해체하는 것은 어떨는지.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이야기의 주인은 이야기다. 그들이 우리의 몸을 빌려 자신들의 유전자를 실어나르고 있는 것이다." ●